

最近 經濟難局의 實相

金 泰 日

〈全國經濟人聯合會調查部調查課長〉

I. 序

최근 우리나라 經濟는 60年代初 高成長期이래 가장 어려운 內外的 市況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안으로는 인플레이 克服, 失業防止, 國際收支의 방어와 더불어 밖으로는 原油需給의 불안, 新保護貿易主義의 강화, 國際金融市場의 借入條件악화, 輸出市場의 景況 등 현명하게 대처할 緊要難題들이 산적해 있다.

이와 같은 難題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經濟는 그 處方을 여러가지 側面에서 分析·評價하고 있지만 難題들을 일소할 수 있는 政策의 選擇이 어렵다는데서 우리 經濟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다.

특히 작년 年末을 전후하여 불어 닥친 第2 오일 쇼크는 60億달러라는 輸入負擔加重 뿐만 아니라 國內物價를 크게 자극했고 物價上昇을 緩和시키기 위한 需要抑制政策은 결국 企業의 投資萎縮을 招來, 成長減退에 物價上昇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을 더욱 深化시킴으로써 아무리 적응 능력이 큰 經濟體質 혹은 企業經營의 對應力, 健實한 國民生活意識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勘耐하기에는 힘에 부친 상황을 우리 經濟는 겪게 되었다.

이는 60년 이후 16년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1.8%의 成長率을 記錄한 80년 1/4 분기에 이어 2/4 분기에 마이너스 6.3%, 3/4 분기에 마이너스 0.8%로 계속 負의 成長을 보였고 物價는 금년 들어 11月末까지 38.0%나 오른 한편 經常收支 赤字幅 역시 지난 해보다 30%나 증

가했다는 公式統計資料가 잘 反映하고 있다.

이와 같은 高物價, 景氣沈滯 그리고 國際收支의 赤字 등 三重苦를 打開하기 위해서 政府는 6·5措置, 9·17 및 11·8 經濟活性化對策 등과 더불어 長期對策으로 重化學工業의 調整, 大企業의 系列企業整理 및 非業務用 不動産處分促進 등 諸般對策을 강구하였다. 이러한 政策選擇의 效果가 萎縮된 投資意慾을 振作시키고 企業體質을 강화시켜 沈滯된 우리 經濟를 얼마나 活性化시킬 것인가는 아직 未知數인 상태이지만 81년 經濟運用指針에서도 經濟成長率을 5% 內外로 策定한 것은 經濟活性化에 대한 政策意志라고 할 수 있으며 최근 經濟環境으로 미루어 커다란 의미를 갖는 것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國內外的으로 불어 닥치고 있는 景氣 不況의 깊이는 어디까지이며 要因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늪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經濟의 底力이나 處方은 있는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도 意義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II. 經濟難局의 深刻性

두차례에 걸친 政府의 景氣浮揚策이 實效를 거두지 못한채 企業의 稅負擔輕減, 金利引下를 내용으로 하는 세번째의 景氣振作策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 效果 역시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히 油價의 再引上은 景氣活性化對策을 相殺시키는 데 決定的인 障礙要因이 되고 있어 좀처럼 國內景氣의

沈滯는 回復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鑛工業部門의 産業生産指數를 보더라도 평균 20%의 증가를 보여 오다가 79년 2·4分期부터 10%대로 鈍化되더니 4·4分期 중에는 1.6%의 미미한 증가세에 머물렀다. 이러한 生産活動의 鈍化 추세는 80년에 들어와 더욱 加速化하여 10月末 기준으로 마이너스 8.5%라는 生産減少를 보인 반면 在庫는 오히려 前年同月對比 36.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生産減少에 在庫累增이라는 심각한 景氣不況局面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고용측면에서도 昨今の 經濟條件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데, 生産減少를 反映하여 製造業의 稼働率指數도 크게 低下되면서 고용 수준의 감퇴와 操業日數 단축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1~9월까지의 GNP 成長率이 지난 해에 비해 마이너스 3.1%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 물론 3·4分期中 國民總生産이 지난 1·4分期의 마이너스 1.8%, 2·4分期의 마이너스 6.3%에 비해서 마이너스 0.8%로 다소 완화되기는 했으나 秋穀生産이 反映되는 4·4分期에는 더욱 심화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需要面에서도 萎縮된 消費心理로 消費需要가 지난 해에 비해 1.1%가 감소했고 특히 投資需要는 高金利 및 消費需要減少와 더불어 政治·社會的 격동 등 投資環境의 악화를 反映 16.3%나 감소를 보이고 있다.

또한 都賣物價는 1·12措置에 의한 金利 및 換率調整과 1월 29일 평균 59.43%의 油價引上和 더불어 잇따른 工產品價格의 上向調整으로 상반기중 이미 27.4%가 올랐고 하반기에 들어서도 8월 24일에 단행된 石油價의 평균 14.7% 引上 그리고 10월 들어 換率의 급격한 상승으로 10월末 현재 36.0%의 上昇率을 보이고 있는데다가 11월 17일 平均 12.56%의 油價引上 및 換率의 계속적인 上昇을 감안하면 年末까지는 40%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여 1次 石油波動 이후 최고의 物價上昇率을 예감케 하고 있다.

對外去來面에 있어서는 換率의 流動化 등에 힘입어 輸出은 비교적 호조를 보이고 있고 輸入增加勢는 鈍化되고 있어 경상수지 적자 폭이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2억달러가 적은 53억 달러 수준에 머물 것이 예상되고 있으나 적자 폭 자체가 전년의 41억달러에 비해 30%나 늘어나고 있음은 우리 경제의 負擔을 加重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世界經濟의 스태그플레이션의 심화에 따른 新保護貿易主義의 대두, 石油價格의 再引上 움직임 등으로 미루어 보아 對外貿易環境은 더욱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대폭적인 輸出增大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石油를 비롯한 原資材 輸入負擔의 증대, 食糧輸入增大 등이 불가피함을 고려할 때 國際收支不安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Ⅲ. 企業經營의 어려움

올해 成長率이 보여 주고 있듯이 우리 經濟가 당면하고 있는 不況은 매우 심각한 局面이며 이의 타개를 위한 原動力은 근본적으로 企業의 活性化와 企業意慾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經濟發展의 原動力은 企業意慾과 企業經營活性化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企業經營이如意치 않음으로써 파생되는 고용 문제는 政治社會의 安定과도 直結되며 80년대 民間主導型經濟를 指向함에 있어 企業이 사회로부터 부여받은 企業的 責任과 社會的 責任이 막중함을 고려할 때 企業의 不況勘耐能力 不足原因이 실사 企業의 構造的인 體質의 脆弱性에 있다 할지라도 또는 外部的인 충격의 탓이라고 할지라도 많은 企業이 長期間 經營難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經濟發展 原動力의 弱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不況局面의 根本的인 문제는 企業이 심각한 經營難에 長期間 허덕이면서 國民經濟가 負의 成長이 지속되고 있다는 데 있다. 限界企業의 倒産은 말할 것도 없고 大企業까지도 經營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代表的 企業이라 할 수 있는 上場企業의 올해 上半期 營業實績을 기준으로 成長性動向을 보면 製造業의 경우 總資本增加率

이 39.4%에 머물고 있어 物價上昇率을 감안하면 1년 동안에 오히려 2%가 줄어 들었으며 實質 賣出額도 79년 上半期보다 12.3%나 감소하여 經營活動의 萎縮을 보이고 있다. 특히 그동안 戰略産業으로 育成되어 온 電氣, 電子 및 組立金屬業 등 機械工業分野에 經營活動萎縮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은 우리 經濟構造의 脆弱性을 그대로 反映한 것이라 하겠다.

企業의 財務構造變動狀況을 보더라도 自己資本比率이 79년 上半期の 21.9%에서 80년 上半期에는 19.7%로 2.1% 포인트나 낮아져 景氣沈滯에 따라 企業의 收益性이 惡化되고 證券市場의 長期沈滯로 有價增資가 어려웠음을 反映하고 있다. 또한 販賣代金の 回收 지연, 賣出債權의 增大 등 資金回轉이 鈍化되면서 支給能力의 指標인 流動比率도 108.4%에서 104.1%로 低下되었는데 이는 資金事情指標인 銀行의 要求拂預金 回轉率이 78년에 16.3회, 79년의 19.0회에서 6月中에는 21.1회로 늘어났고 8月中에는 21.6회까지 늘어나는 등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고 어음 不渡率도 張數基準으로 9月中에 0.16에 달하고 있는 데서도 잘 反映되고 있다.

한편 需要減退에 따라 賣出額이 24.6%의 증가에 머물는데 反하여 主要輸入原資材價格 上昇에 의한 材料費가 48.1%가 증가되었고 公共料 金引上에 따라 電力 및 水道, 가스 등 動力費도 79년 上半期보다 2배 이상이 늘어나는 등 製造原價가 賣出額增加率을 上廻하는 26.2%나 증가한 데다가 1.12 措置에 의한 金利 및 換率의 引上으로 金融費用 및 換差損이 3배나 늘어남으로써 企業의 收益性指標은 크게 惡化되고 있다. 즉 總資本經常利益率이나 賣出額經常利益率 그리고 收支比率 등 諸指標은 그 比率이 모두 低下되어 收益性的 악화를 反映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 代表的 企業이라 할 수 있는 上場企業들이 어려운 狀況일 진대 餘他企業의 經營難은 얼마나 어려운 狀況인가를 짐작케 한다.

IV. 經濟構造의 脆弱性

沈滯된 經濟를 活性化시켜 經濟成長의 潛在

力回復이나 고용 증대가 우리 經濟의 최우선 당면 課題임에 틀림 없으나 不況局面이 單純히 國內要因에 의한 것이라면 問題의 解決은 비교적 간단해진다. 그러나 우리 經濟의 體質이 海外依存의 이어서 世界經濟不況과 인플레이 현상이 國內景氣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데 우리 經濟의 不況打開에 어려움이 있다. 產油國들의 石油價引上은 國際收支惡化와 國內物價上昇의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는 것과 같이 세계 경제의 변화는 좋은 싫든간에 우리 經濟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현실이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선 國際經濟動向에 어떻게 效率的으로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야말로 우리 經濟의 成長潛在力을 回復시키는 關鍵이 된다고도 할 수 있다.

80년에 들어서 世界經濟動向의 특징은 產油國을 除外한 모든 國家들이 不況局面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OECD 가맹국들은 油價上昇에 따른 實質需要減少效果의 本格化, 인플레이 抑制를 위한 財政·金融緊縮政策의 持續, 高金利 및 國際情勢緊張에 의한 企業의 投資不振 등이 主要因이 되어 産業生産增加率이 5월 이후 마이너스로 轉換하였고 失業率은 5%를 上廻하면서 物價上昇率은 10%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先進國의 不況深化는 OPEC가 급증된 原油輸出收入을 바탕으로 輸入을 크게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世界貿易伸張率을 79년의 6.6%에서 2.3%로 大幅 鈍化시킨 사실은 우리나라의 輸出環境惡化에 決定的 要因이 되었다.

또한 79年初 이래 主要先進國間에 金利競爭으로 비롯된 國際高金利趨勢은 80년 들어 더욱 深化되어 4月初에는 그 피크를 이루다가 점차 下落勢로 돌아섰으나 11월부터 다시 金利는 上昇勢로 돌아서는 추세를 보였다. 國際高金利 현상 때문에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 外債가 79年末로 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올해에도 60억달러 정도 더 들여 와야 됨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자동적으로 채무 부담이 늘어나는 데다가 企業들은 原價高 壓力까지 받게 되는 것이다. 國際高金利 현상은 또 先進各國의 비상한 인플레이 대책과 金融緊縮結果이니 만큼 자연히 景氣를 위축시켜 輸入需要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보다도 더 우리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石油을 비롯한 原資材需給 및 價格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國內 에너지 需要의 많은 部門을 石油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産業構造에 있어서 原油價의 騰落은 國內物價를 좌우하고 있으며 國際收支變動에 커다란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 經濟가 年間 2억 배럴의 原油를 所要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배럴당 1달러의 油價引上은 2억달러의 追加負擔으로 당장 나타나고 있는 것이며 우리나라의 輸入構造가 60% 이상이 原資材임을 고려할 때 石油을 비롯한 海外原資材의 價格變動은 國內經濟自體內에서 緩和시켜야 하는 脆弱點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經濟의 현실이다.

다행히도 80年中 OPEC 原油需給은 79年度와 같이 供給不足狀態는 면했으나 美·이란 관계 惡化의 長期化,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란·이라 戰爭 등으로 原油需給의 不安感은 常存하였으며 油價 역시 79년과 같이 급상승 현상은 다소 완화되었으나 產油國들이 1월~2월 및 5월에 배럴당 2달러씩 전반적으로 인상한 데 이어 6월에 또 한차례 0.5~2.0달러씩 인상함으로써 배럴당 平均 31.8달러를 記錄하고 있다. 또한 農產物 및 水產品價格도 品目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上昇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物價 上昇率의 64%가 海外要因에 의해 작용되고 있다는 分析資料와 같이 資源이 부족한 우리 經濟現實로서 海外原資材價格上昇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데 脆弱性이 있다고 하겠다.

V. 經濟政策의 內容

이와 같이 世界經濟의 沈滯 및 海外原資材의 價格上昇은 資源貧國으로서 輸出主導의 對外指

向 開發戰略을 選擇하고 있는 우리 經濟에 커다란 충격을 가하고 있다. 經濟成長面에서는 原油價上昇에 따른 막대한 所得의 海外流出, 投資의 低調, 輸出不振 등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마이너스 수준에 成長이 머물었고 國際收支面에서는 輸出鈍化와 輸入負擔의 增大, 借入條件의 不利 등 어려움이 加重되었고 物價面에서는 海外要因에 의한 높은 物價上昇率을 記錄한 것이다. 한편 國內적으로도 消費需要의 감소와 産業生産活動의 萎縮, 失業의 增大 등 景氣沈滯 현상이 뚜렷이 나타났으며 특히 企業投資活動의 低調는 國內外經濟環境이 好轉된다 하더라도 成長潛在力의 回復를 어렵게 할 우려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狀況이 進行되는 과정에서 政府는 11월 8일 금년들어 네번째의 經濟政策上 큰 변동을 가져 오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즉 與受信金利를 引下하고 企業에 대한 金融支援을 강화하며 家電製品과 小型 乘용차에 대한 特別消費稅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것이었다. 뒤돌아 보면 政府는 1·12 措置로 換率과 金利의 現實化를 단행하였다. 그 결과 예금은 상당히 늘었으나 기업의 자금 부담은 더욱 무거워졌고 다른 요인과 겹친 物價騰貴가 침체의 늪을 향하여 깊이 가라앉게 되었다. 따라서 政府는 6·5措置와 9·16 措置를 통하여 金利를 단계적으로 내리고 여신에 있어서도 景氣浮揚的인 要素를 加味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경제 활성화 정책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物價上昇을 더욱 促進시켜「走馬型」인플레이션이라는 극한적 상황을 招來할 지도 모른다는 政策의 딜레마 때문에 強力한 景氣浮揚策을 회피하고 制限的인 措置에 그쳐 아쉬운 점은 있으나 景氣活性化方途를 꾸준히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意義를 찾을 수 있다.

80年中 經濟政策의 主要內容

政 策	主 要 內 容
1. 1·12 經濟綜合 對策	1) 金利引上 ○預金金利 : 年 18.6% → 24.0% ○與信金利(상업어음—우량) : 年 18.5% → 24.5%

政 策	主 要 內 容
	2) 換率引上 및 流動化 ○韓銀集中基準率 : 달러당 484 원 → 580 원 ○2월 27일부터 流動化 3) 緊縮基調의 堅持(總通貨增加率 年 20% 以內) 4) 物價安定 및 庶民生活 安定 ○정부미 무제한 방출, 혼합곡, 보리쌀가격 동결 ○住宅價格의 安定 및 投機防止 5) 國際收支赤字防止 ○輸入需要의 抑制(輸入金融 축소) 6) 고용 안정책 강구 ○중소기업 부문의 투자 촉진 ○庶民住宅 건설 확대 ○제정 부문을 통한 고용 안정 대책 추진 7) 중화학 공업의 內實化와 산업 합리화 촉진
2. 6·5 綜合經濟 對策	1) 雇傭 및 庶民生活安定 對策 ○中小企業 特別資金 供給規模擴大(4千億원 → 5千億원) ○住宅資金 年中 1,294 億원 追加供給 ○庶民資金擴大(2,500 億원 → 2,800 億원) 支援 2) 國際收支防禦 對策 ○輸出金融融資單價引上(달러當 507 원 → 525 원) ○關稅 징수유예제도의 적용시한 1年 延長 ○海外建設 促進支援 ○延支給輸入品目 縮少調整 ○奢侈性, 不要不急物品에 대한 關稅 20% 引上 3) 金利引下와 金融支援擴大 ○與受信金利 平均 1% 포인트 引下 ○短資會社 어음, 割引金利 1.5% 포인트 引下 ○會社債 2.0% 포인트 引下 ○總通貨增加率 20%에서 25%로 上向 調整 ○內需用 生必需品業體에 施設資金供給擴大(1,000 億원 → 1,300 億원)
3. 9·16 經濟活性化 對策	1) 宅地 및 住宅供給 ○양도소득세율 引下 및 탄력세율제 도입 ○주택건설업체 운영자금 200 億원 추가 공급 ○土關公 토지매입자금 300 億원 증액 2) 輸出金融의 擴大 ○輸出金融 달러當 融資單價引上(525 원 → 540 원) ○업종별 경쟁력 강화 대책 수립 실시 ○영세기업 수출금융 용자한도 인상(5千萬원 → 2 億원) ○해외건설 지급보증 확충

政 策	主 要 內 容
	3) 金利流動化 실시 ○ 일반대출, 예금금리 각 2% 인하 ○ 저소득층 저축에 대한 우대금리 적용 4) 中小企業支援 ○ 중소기업 어음 할인액 일부 은행별 여신한도서 除外 ○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 어음 발행 억제 ○ 영세기업에 대한 國民銀行 與信限度引上(운전자금 3千萬원 → 5千萬원) 5) 식료품 공급 원활화 6) 서민생활 안정 ○ 긴급수입 生必需品 관세율 50% 인하 ○ 저소득층 가계예금 우대 확충 ○ 의료보험 대상 확대(300인 이상 업체 → 100인 이상 업체) ○ 연탄값 81년 3월까지凍結
4. 9·27 企業體質強化 措置	1) 企業과 企業人所有 非業務用 不動産 處分 2) 財閥그룹 소유 系列企業 整理 3) 各種 協會 및 組合整備 4) 救濟金融의 억제 5) 金融機關 與信管理機能 強化 6) 外部監査 制度의 導入 7) 經費節減과 財務構造 改善을 위한 支援方案 檢討
5. 11·8 經濟活性化 措置	1) 金利引下 { 예금금리 - 平均 2.5% 여신금리 - 平均 2.0% 2) 特別消費稅率의 引下調整 3) 需要者 金融擴大 4) 컬러 TV의 放映

VI. 經濟難局의 要因

현재 직면하고 있는 심한 不況이 外部要因인 油價引上이나 이에 따른 세계경제의 침체가 직접적인 要因임에는 틀림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76년부터 輸出增加率이 鈍化되었는데 이러한 輸出이라는 外需와 國內販賣라는 內需의 부진이 不況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겠다. 즉 海外依存도가 높은 우리 經濟는 油價波動에 기인한 海外 인플레이션이 國內物價의 昂騰을 가져오고 인플레이 抑制을 위한 安定化 政策의 실시를 불가피하게 함으로써 그 결과 購買力의

감소와 더불어 投資不振을 초래하였으며 또한 高 인플레이에 따른 賃金上昇壓力, 高金利政策에 따른 金融費用負擔加重 등은 國際競爭力을 弱화시키는 데다 海外需要 역시 증가율을 둔화시켜 低成長과 低雇傭을 가져 왔다고 하겠다.

그러나 景氣沈滯을 전적으로 海外要因에 돌리기에는 문제가 너무 많다. 이는 우리 經濟與件과 비슷한 構造下에서 競爭對象國이 되고 있는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의 경우만 보더라도 輸出伸張率이 우리나라를 훨씬 앞지르고 있는 反面 輸入增加勢는 오히려 우리나라를 밀치고 있고 成長鈍化나 失業率 증가도 그렇게 심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經濟難의 근본 원인은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산업정책, 금융정책 등이 너무 一方的으로 흐른데 있지 않았는가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우선 內需産業과 輸出産業에서 보면 지금까지 輸出産業에 일방적인 政策支援을 실시함으로써 內需産業의 바탕이 脆弱하다는 점이다. 輸出産業도 그동안 技術進步의 굳건한 기반 없이 產出성을 무시한채로 物量的인 輸出目標達成 위주로만 육성해 왔다. 따라서 輸出은 技術革新에 기초를 두지 못하고 低賃에 토대를 두는 產出성을 가지고 행해 왔기 때문에 임금 상승 결과 政府의 지원 없이 輸出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內需産業自體의 育成에 있어서도 大企業과 中小企業, 重化學工業과 輕工業, 工業과 農業間에 균형적인 육성이 未洽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에 비하여 所得分配政策 역시 不均衡을 면치 못해 인플레이션 累積過程에서 內需가 조금만 증대하면 供給量이 不足하게 되었고 이는 物價上昇을 더욱 加速化시켜 購買力을 감퇴시키고 그 결과 경제 성장과 고용의 부진을 초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최초 國內市場需要不振은 섬유류, 家電製品에서 시작, 각종 서비스 부문까지 확산되어 덩핑 販賣가 성행되고 있는 데서 찾아볼 수 있으며 결국 구매력 감퇴 → 판매부진 → 投資需要 減退 → 低成長 → 失業增加 등 惡循環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輸出指向政策에 바탕을 둔 정부의 지나친 重工業化意志가 같은 業種에의 무분별한 난립을 가져와 결국은 國民經濟 전체에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된 것도 경기 침체의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重化學工業은 輸出指向의 次元에 집착한 나머지 단순히 輸出商品構造를 附加價値가 높은 重化學製品으로 바꾼다는 것만 지나치게 의식하고 시멘트, 鐵鋼, 石油化學 등 基礎素材工業에서 造船, 自動車, 重電機器, 發電設備 등 高度의 完成資本財重工業에 이르기까지 모든 중화학 부문을 동시에 추진해 왔다. 그러나 技術能力의 低水準, 수요 부족과 경쟁력의 취약 등 여러가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특히 生産의 대부분을 輸入된 原料나 中間財에 의존하여 왔으므로 生産의 迂回度가 낮

아 附加價値創出誘發效果도 적어 投資配分政策의 非效率性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政策當局의 國內需要抑制에 焦點을 둔 通貨金融政策에 대한 過信이 景氣不況을 促進시켰다고 하겠다. 즉 換率引上和 함께 지난 1월에 단행된 金利引上措置는 金利의 資金需給機能을 살려서 企業의 방만한 他人資本依存, 資金의 非效率性을 억제하는 한편 貯蓄増大를 통한 與信擴大로 企業의 金融費用을 引下하자는데 政策背景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資金需給調節機能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때 비로소 타당성을 지니게 된다. 그런데 資金需要가 投資收益率보다는 企業의 生存維持를 위해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高金利로 資金需要를 완화시키지는 못하였다고 하겠다. 또한 인플레이션 抑制手段으로서의 高金利政策은 인플레이션 性格이 超過需要 인플레이션 경우 타당성이 인정되나 최근과 같이 海外要因에 의한 「코스트·인플레이션」에 主因이 있을 경우에는 결국 企業의 금융비용만 加重시켜 인플레이션의 促進 내지 投資의 위축, 價格 상승에 따른 국내수요 감퇴 촉진 국제 경쟁력 약화에 의한 輸出不振 등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을 深化시켜 줄 뿐이다.

또한 換率의 流動化와 더불어 나타난 換率의 급격한 上昇에 대한 적절한 補完對策이 없었던 것도 不況深化의 原因이었다고 하겠다. 換率의 流動化는 國際收支調整機能強化와 輸出促進에 의한 國內景氣의 振作으로 不況을 打開한다는 觀點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石油를 비롯한 原資材, 資本 및 技術 등의 海外依存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서 換率의 上昇은 企業의 元利金負擔 및 原資材調達費用의 負擔增加로 生産 「코스트」 上昇 및 國民生計費 上昇 등 상당한 物價犧牲을 수반하였고 특히 內需産業이나 戰略的으로 育成되어 온 外債保有 企業의 경우 換差損負擔加重에 따라 經營活動이 전반적으로 위축되었다. 이는 換率流動化의 否定的 側面으로서 國內景氣를 더욱 위축시키는 要因이 되었음을 反映한 것이라 하겠다.

VII. 不況局面에 대한 対応

우리 經濟가 당면하고 있는 國際收支逆調와

인플레이션 및 景氣沈滯에 따른 失業增大라는 三重苦를 어떻게 극복하여야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더우기 이러한 추세가 81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보다 큰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81년의 우리 經濟의 課題는 조심스럽게 經濟活性化와 國際收支均衡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安定化政策의 수행 과정에서 通貨金融政策과 같은 총수요 관리정책만으로 景氣平準化를 도모한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을 발생케 한다는 최근의 이론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國民經濟의 需要側보다는 供給側을 중시함으로써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기한다는 것은 投資의 效率性提高 및 勞動生産性의 向上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및 體系의 합리화 등 보다 광범위한 分野의 能率向上을 의미한다.

따라서 景氣浮揚策은 지난 11·8 措置에서와 같이 消費景氣의 振作보다는 投資景氣에 보다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消費景氣의 浮揚은 供給能力面에서 隘路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고 對外均衡에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投資環境을 조성해 줌으로써 부단한 生産性提高投資 즉 省資源, 省人力, 省에너지, 新製品開發 등을 위한 投資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인 景氣浮揚이나 好景氣의 지속을 위해서는 企業의 投資誘導가 중요한 과제이며 또한 國際競爭에 이겨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經濟構造下에서 競爭國의 生産性向上을 앞지르기 위한 지속적 投資擴充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投資 분위기의 造成은 投資資本費用의 輕減을 위한 金利의 引下와 金融供給의 圓滑化가 주요한 課題이며 아울러 稅制面에서도 企業에 대한 直接投資 誘因을 부여함과 동시에 利子所得보다는 投資收益이 유리하도록 稅制의 調整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金利水準의 引下が 早速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國際收支赤字解消의 유일한 탈출구가 輸出增大에 있음은 周知의 사실이거나 輸出增大는 기본적으로 경쟁력에 의하여 左右되는 것이므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리 인하는 切實한 것이다. 價格競爭의 척도가 되는 原價의 三要素 중 原資材 코스트는 주로 海外市場

價格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절감 대책에는 限界가 있고 賃金 역시 그동안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抑制에 限界가 있으므로 유일한 調節對策으로는 資本費用의 引下밖에 없다. 물론 原資材 코스트나 賃金 코스트도 生産性向上으로 節減이 가능한 것이나 이는 長期的인 과제이기 때문에 당면 難局을 극복하기 위한 短期對策으로는 未洽한 것이라 하겠다.

한편 인플레이션 수습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生必品價格의 安定과 價格管理問題라고 할 수 있다. 生必品價格의 安定은 家計의 보호 나아가서 社會의 安定뿐만 아니라 賃金 코스트 上昇壓力을 緩和시켜 줌으로써 對外競爭力強化의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生必品價格의 安定은 供給物量의 擴大 및 유통구조 개선에서 찾아야 하겠지만 生必品에 대한 附加價値稅의 減면, 主要 基礎原料導入에 대한 關稅減免 등 租稅政策의 伸縮性과 아울러 生必品 生産業體의 原價 코스트 壓力을 減輕시킬 수 있는 金融·稅制上的 支援과 公共料金の 輕減對策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價格管理 政策에 있어서 價格의 직접 통제는 당장엔 效果가 있으나 長期化되면 價格 및 需給의 歪曲을 가져온다는 점을 중시하여 직접 규제는 小幅에 머물고 경쟁제한 및 不公正去來要因을 제거하여 價格競爭을 할 수 있는 條件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政策에 대한 要請보다 중요한 것은 經濟主體로서의 企業이 어떻게 合理的인 經營을 통해서 不況을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점으로서 과거와 같은 外形爲主, 社勢誇示, 全業種 羅列式的 經營에서 탈피해야 할 것이다. 企業은 資金만으로 되지 않으며, 技術蓄積, 管理能力, 消費者에 대한 「이미지」 등 그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專門性을 살리는 길만이 성공의 첩경이다.

아울러 오늘날과 같은 高金利 資金難時代에 있어서 金融費用의 경감뿐만 아니라 政府依存에서 탈피, 自律的 經營體制를 갖추기 위해서는 非業務用不動產處分促進 및 전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分野를 과감하게 정리하는 決斷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試練은 向後 企業發展을 위한 體質強化의 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